

한·미 동맹 50주년 기념 만찬사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 내외분,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 내외분,

오버린 암참 회장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여러분은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미 동맹을 체결한 지 꼭 50주년이 됩니다. 이 자리는 반세기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우리 두 나라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세계 평화의 한 축을 맡아 왔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다른 어떤 동맹관계보다 긴밀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6·25전쟁에서 함께 피땀 흘려 싸운 미군 장병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끝내 지켰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미국 국민들의 용기가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6·25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하여 지금의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장병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장에 대해 미국 시민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를 비롯한 주한미군 재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부시 대통령과 만나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지난 8월에는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머지않아 2차 회담이 열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은 변했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친구 나라인 한국에 사시면서 늘 보람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